

전남교육청, 미래교육새로운 기회 '농어촌 교육실습' 운영

23일까지 광주교대 2학년 전체 324명 대상 전남 농어촌 초등교육 대한 관심·이해 유도 전남 지역 근무 의욕 갖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예비 초등교사들에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래교육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 농어촌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9일~23일 전남 지역 13개 학교에서 광주교육대학교 2학년 학생 전체 324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교육실습을 운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교육대학교의 공동 사업으로 진행되는 농어촌 교육실습은 예비교

사인 대학생들에게 전남의 농어촌 초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고, 전남 지역 근무 의욕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했다. 전국 교육대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광주교대에서만 이뤄지는 실습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교육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언택트(비대면) 중심 미래교육에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는 전남 농어촌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농어촌 교육실습은

각 실습학교의 특성에 맞춰 농어촌 교육여건 및 상황을 드러내 보여주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 실습 3일과 대면 실습 2일로 이뤄진다. 비대면 실습은 주로 자신의 교육관 및 교육철학 세우기, 전남교육 우수사례 이해, 온라인 수업의 이해, 슬기로운 교사생활(준 화상수업, 외부강사 초청 원격강의 13종) 등으로 구성된다. 매일 오전 온라인으로 담당교사와 실습학생이 만나 당일 실습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실습학생의 실습과제 해결에 대

해 온라인 화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이들 간의 대면 실습은 실습학교 수업 참관,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이번 실습을 준비한 도교육청 김보경 장학사는 "이번 실습은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수업을 학교 단위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면서, "더불어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친화 강소기업 서포터즈' 기업탐방 진행

강소기업 중 청년들 근무하기 좋은 곳 선정하는 제도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대학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 서포터즈가 최근 3일에 걸쳐 기업방문 및 취재를 진행하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강소기업 중 임금, 일상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곳을 선정하는 제도로, 순천대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는 지역 내 경쟁력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취재 및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기업들의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을 돕는 알리미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 강소기업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더블유피, 공장자동화 및 안전장치 전문

기업 ㈜엘케이, 의약품 도매 유통기업 ㈜호남약품 등 3개 기업을 방문취재하였다. 해당 기업들은 순천 및 여수 등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회 운영, 학자금 지원 등 직원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회사의 비전, 인재상, 근무 환경 등을 청취한 서포터즈들은 "기업방문을 통해 기업의 진면목과 실제 근무 환경을 엿볼 수 있었고, 우리 지역 내 기업들도 워라벨과 청년고용정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며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업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탐방 소감을 밝혔다. 순천대 서포터즈는 탐방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네이버 공식카페에 탐방기를 업로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해당기업들의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광주중앙도서관, 학교로 찾아가는 '책으로 만나는 세상' 운영

중학생들에게 특기·적성 및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광주중앙도서관이 중학생들에게 특기·적성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책으로 만나는 세상'을 4~12월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책으로 만나는 세상'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해 살레시오여중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문독서프로그램이다. 광주중앙도서관은 살레시오여중으로 강사를 파견해 주제별 독서지도 및 독후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원격수업의 반복된 학사 일정에 따라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유연한 운영을 통해 학교와 참여 학생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것

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중앙도서관은 지난 6월17일~10월10일 전반기 1~3학년으로 구성된 연극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고 맞춤형 방과 후 진로교육활동'을 운영했다.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학생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인호기자



함평영재교육원, 종이비행기 창의과학캠프

유체역학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완)은 지난 10월 17일 함평영재교육원 초등과정 40명을 대상으로 종이비행기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창의과학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창의과학캠프는 유체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진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팀별 히어로슈트를 꾸며보는 활동과 종이비행기의 비행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학습을 먼저하였다. 히어로슈트 팀을 상징하는 문양이나 그림, 글씨등을 활용하여 협력하여 꾸미는 활동을 하였고, 이론 학습에서도 비행기를 정확히 멀리 날리기 위해 열심히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이였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종이비행기를 순서에 따라 접어보고, 접은 종이비행기의 날개를 조정하고 탐방로 함께 연습하는 활동이 가장 즐거워 보였다. 개인별 종이비행기 대회, 팀별링 워 멀리가기 대회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직접 느껴보는 활동에 매우 흥미로워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신○○ 담당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흥미와 창의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도 종이비행기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체험이 두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본다.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이번 기회로 기분 전환이 되고, 유체역학에 대한 관심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김 완 교육장은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된 지식과 과학적 상상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함평의 인재들이 과학캠프와 같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상상력을 맘껏 발휘한다면 함평을 대표하는 훌륭한 과학자도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함평교육지원청도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